

[1] To whom it may concern, My name is Peter Jackson and I am thinking of applying for the Advanced Licensed Counselor Program that the university provides.

관계자분께, 저의 이름은 Peter Jackson이고,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Advanced Licensed Counselor Program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2] I found that the certification for 100 hours of counseling experience is required for the application. 저는 지원을 위해 100시간의 상담 경력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 However, I do not think I could possibly complete the required counseling experience by the current deadline.

그러나 저는 아마도 현재 마감 기한까지 필요한 상담 경험을 완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4] So, if possible, I kindly request an extension of the deadline until the end of this summer vacation.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저는 이번 여름 방학 말까지 마감 기한의 연장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5] I am actively working on obtaining the certification, and I am sure I will be able to submit it by then.

저는 증명서를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저는 제가 그때까지 그것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6] I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following the application process, and would greatly appreciate your consideration of this request.

저는 지원 과정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이 요청에 대한 귀하의 고려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7] I look forward to your response.

저는 귀하의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8] Sincerely, Peter Jackson

진심을 담아, Peter Jackson 드림

[1] The passport control line was short and the inspectors looked relaxed; except the inspector at my window.

입국 심사 줄은 짧았고 심사관들은 편안해 보였는데, 내 창구의 심사관은 예외였다.

[2] He seemed to want to model the seriousness of the task at hand for the other inspectors.

그는 다른 심사관들에게 당면한 업무의 심각성에 대해 모범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3] Maybe that's why I felt uneasy when he studied my passport more carefully than I expected.

아마 그것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가 내 여권을 더 꼼꼼히 살펴볼 때 불안감을 느꼈던 이유였다.

[4] "You were here in September," he said.

"9월에 여기 계셨네요." 라고 그가 말했다.

[5] "Why are you back so soon?"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셨나요?"

[6] "I came in September to prepare to return this month," I replied with a trembling voice, considering if I missed any Italian regulations.

나는 내가 이탈리아의 규정을 놓친 것이 아닌지 생각하면서 "이번 달에 돌아올 것을 준비하기 위해 9월에 왔었어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7] "For how long?" he asked.

"얼마나 오래요?" 라고 그가 물었다.

[8] "One month, this time," I answered truthfully.

나는 "이번에는 한 달 동안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대답했다.

[9] I knew it was not against the rules to stay in Italy for three months.

나는 이탈리아에 세 달 동안 체류하는 것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0] "Enjoy your stay," he finally said, as he stamped my passport.

"즐거운 여행 되세요." 그가 마침내 내 여권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다.

[11] Whew! As I walked away, the burden I had carried, even though I did nothing wrong, vanished into the air.

휴! 내가 걸어 나갈 때,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짊어지고 있던 짐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12] My shoulders, once weighed down, now stretched out with comfort.

한때 눌렸던 내 어깨가 이제 편안한 마음과 함께 쭉 펴졌다.

[1] Merely convincing your children that worry is senseless and that they would be more content if they didn't worry isn't going to stop them from worrying.

걱정은 의미 없고 그들이 걱정하지 않는다면 더 만족할 것이라고 여러분의 아이들을 설득하는 것만으로는 그들이 걱정하는 것을 멈추게 하지 않을 것이다.

[2] For some reason, young people seem to believe that worry is a fact of life over which they have little or no control.

어떤 이유로, 아이들은 걱정이 자신이 거의 통제할 수 없거나 아예 통제할 수 없는 삶의 사실이라고 믿는 것 같다.

[3] Consequently, they don't even try to stop.

결과적으로, 그들은 멈추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

[4] Therefore, you need to convince them that worry, like guilt and fear, is nothing more than an emotion, and like all emotions, is subject to the power of the will.

따라서, 여러분은 걱정이 죄책감과 두려움 처럼 감정에 지나지 않고, 모든 감정과 같이 의지의 힘에 영향을 받기 쉽다고 그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5] Tell them that they can eliminate worry from their lives by simply refusing to attend to it.

아이들에게 단순히 걱정에 주의를 기울이려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삶으로부터 걱정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라.

[6] Explain to them that if they refuse to act worried regardless of how they feel, they will eventually stop feeling worried and will begin to experience the contentment that accompanies a worry-free life.

아이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와 상관없이 걱정하며 행동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들은 결국 걱정하는 것을 멈추고 걱정 없는 삶을 수반하는 만족감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하라.

[1] In today's information age, in many companies and on many teams, the objective is no longer error prevention and replicability.

오늘날 정보화 시대에는, 많은 기업과 팀에서 목표는 더 이상 오류 방지와 반복 가능성이 아니다.

[2] On the contrary, it's creativity, speed, and keenness.

반대로, 그것은 창의성, 속도 그리고 명민함이다.

[3] In the industrial era, the goal was to minimize variation.

산업화 시대에서, 목표는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4] But in creative companies today, maximizing variation is more essential.

그런데 오늘날의 창의적 기업에서는 변화를 극대화하는 것이 더 필수적이다.

[5] In these situations, the biggest risk isn't making a mistake or losing consistency; it's failing to attract top talent, to invent new products, or to change direction quickly when the environment shifts.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위험은 실수를 하거나 일관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재능 있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 혹은 상황이 변할 때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것에 실패하는 것이다.

[6] Consistency and repeatability are more likely to suppress fresh thinking than to bring your company profit.

일관성과 반복 가능성은 여러분의 회사에 이익을 가져오기보다 새로운 생각을 짓누를 가능성이 더 높다.

[7] A lot of little mistakes, while sometimes painful, help the organization learn quickly and are a critical part of the innovation cycle.

많은 작은 실수는 때때로 고통스럽지만, 조직이 빠르게 배우는 것을 돕고 혁신 주기의 중요한 부분이다.

[8] In these situations, rules and process are no longer the best answer.

이러한 상황에서, 규칙과 과정은 더 이상 최선의 답이 아니다.

[9] A symphony isn't what you're going for.

교향악단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10] Leave the conductor and the sheet music behind.

지휘자와 악보는 내버려 두어라.

[11] Build a jazz band instead.

대신 재즈 밴드를 구성하라.

[1] Any new or threatening situation may require us to make decisions and this requires information.
어떤 새롭거나 긴박한 상황은 우리가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이것은 정보를 요한다.

[2] So important is communication during a disaster that normal social barriers are often lowered.
재난 상황 중에는 소통이 매우 중요해서 보통의 사회적 장벽이 자주 낮아진다.

[3] We will talk to strangers in a way we would never consider normally.
우리는 평상시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을 방식으로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 것이다.

[4] Even relatively low grade disruption of our life such as a fire drill or a very late train seems to give us the permission to break normal etiquette and talk to strangers.
소방 훈련이나 매우 연착된 기차와 같은 우리 삶에서의 비교적 낮은 수준의 혼란조차도 보통의 에티켓을 어기고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을 허용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5] The more important an event to a particular public, the more detailed and urgent the requirement for news becomes.
어떠한 사건이 특정 사람들에게 중요할수록, 소식에 대한 요구가 더 상세하고 긴박해 진다.

[6] Without an authoritative source of facts, whether that is a newspaper or trusted broadcast station, rumours often run riot.
그것이 신문이든 신뢰할 만한 방송국이든, 사실에 대한 공신력 있는 출처 없이, 소문은 자주 제멋대로 뻗어 나간다.

[7] Rumours start because people believe their group to be in danger and so, although the rumour is unproven, feel they should pass it on.
소문은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이 위협에 처해 있다고 믿어서, 입증되지 않은 소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작된다.

[8] For example, if a worker heard that their employer's business was doing badly and people were going to be made redundant, they would pass that information on to colleagues.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그의 고용주의 사업이 잘 안되어서 사람들이 해고될 것이라고 들으면, 그들은 그 정보를 동료들에게 전달할 것이다.

[1] People seem to recognize that the arts are cultural activities that draw on (or react against) certain cultural traditions, certain shared understanding, and certain values and ideas that are characteristic of the time and place in which the art is created.

사람들은 예술을 예술이 만들어진 시기와 장소에 특유한 특정 문화적 전통, 특정 공유 지식, 그리고 특정 가치와 아이디어에 기반 한(또는 이에 반하는) 문화적 활동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

[2] In the case of science, however, opinions differ.

하지만 과학의 경우에는 의견이 갈린다.

[3] Some scientists, like the great biologist J. B.S. Haldane, see science in a similar light — as a historical activity that occurs in a particular time and place, and that needs to be understood within that context.

위대한 생물학자 J. B. S. Haldane과 같은 일부 과학자들은 유사한 관점에서 과학을 보는데,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발생하고 그 맥락 안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는 역사적 활동으로 보는 것이다.

[4] Others, however, see science as a purely "objective" pursuit, uninfluenced by the cultural viewpoint and values of those who create it.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과학을 그것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의 문화적 관점과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순전히 '객관적인' 일로 본다.

[5] In describing this view of science, philosopher Hugh Lacey speaks of the belief that there is an underlying order of the world which is simply there to be discovered — the world of pure "fact" stripped of any link with value.

과학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묘사할 때, 철학자 Hugh Lacey는 단순히 거기에 있어서 발견되는 세계의 근원적인 질서가 있다는 믿음에 대해 말하는데, 이것은 가치와 어떠한 연관도 없는 순전한 '사실' 의 세계이다.

[6] The aim of science according to this view is to represent this world of pure "fact", independently of any relationship it might bear contingently to human practices and experiences.

이러한 관점에 따라 과학의 목적은 이러한 순전한 '사실' 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이 인간의 관습 및 경험과 흑여 라도 맺을 수 있는 어떠한 관계 와도 무관하게 말이다.

[1] Mental development consists of individuals increasingly mastering social codes and signals themselves, which they can master only in social situations with the support of more competent individuals, typically adults.

정신적 발달은 개인들이 점점 더 사회적 규범과 신호를 스스로 습득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들은 더 유능한 개인들, 일반적으로 성인들의 도움을 받는 사회적 상황에서만 이를 습득할 수 있다.

[2] In this sense, mental development consists of internalizing social patterns and gradually becoming a responsible actor among other responsible actors.

이러한 의미에서 정신적 발달은 사회적 양식을 내면화하고 다른 책임 있는 행위자들 사이에서 점차 책임 있는 행위자가 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3] In Denmark,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is 15 years, which means that we then say that people have developed sufficient mental maturity to be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at this point.

덴마크에서 형사 책임 연령은 15세인데, 이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기에 충분한 정신적 성숙을 발현했다고 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And at the age of 18 people are given the right to vote and are thereby formally included in the basic democratic process.

그리고 18세에 사람들은 투표권을 받고, 그것에 의해 기본적인 민주적 과정에 공식적으로 포함된다.

[5] I do not know whether these age boundaries are optimal, but it is clear that mental development takes place at different rates for different individuals, and depends especially on the social and family environment they have been given.

나는 이러한 연령 경계가 최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적 발달이 다른 개인에게 다른 속도로 일어나고, 특히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회적 환경과 가정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6] Therefore, having formal limits for responsibility from a specific age that apply to everyone is a somewhat questionable practice.

따라서 특정 연령부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책임에 대한 공식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다소 의심스러운 관행이다.

[7] But the question, of course, is whether it can be done any differently.

그러나 물론 문제는 그것이 조금이나마 다르게 행해질 수 있는 지이다.

[1] Born in the English city of Liverpool, Charles Elton studied zoology under Julian Huxley at Oxford University from 1918 to 1922.

영국의 도시 Liverpool에서 태어난 Charles Elton은 1918년부터 1922년까지 Oxford 대학에서 Julian Huxley 아래에서 동물학을 공부했다.

[2] After graduating, he began teaching as a part-time instructor and had a long and distinguished teaching career at Oxford from 1922 to 1967.

졸업 후 그는 시간제 강사로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고 1922년부터 1967년까지 Oxford 대학에서 장기간의 훌륭한 교수 경력을 가졌다.

[3] After a series of arctic expeditions with Huxley, he worked with a fur-collecting and trading company as a biological consultant, and examined the company's records to study animal populations. Huxley와 함께한 일련의 북극 탐험 후, 그는 생물학 컨설턴트로서 한 모피 수집 및 무역 회사와 함께 일했고, 동물 개체군을 연구하기 위해 그 회사의 기록을 검토했다.

[4] In 1927, he wrote his first and most important book, Animal Ecology, in which he demonstrated the nature of food chains and cycles.

1927년 그의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저서인 Animal Ecology를 썼고, 그 저서에서 그는 먹이사슬과 순환의 본질을 설명했다.

[5] In 1932, he helped establish the Bureau of Animal Population at Oxford.

1932년에 그는 Oxford 대학에서 Bureau of Animal Population을 설립하는 것을 도왔다.

[6] In the same year he became the editor of the new Journal of Animal Ecology.

같은 해에 그는 새로운 Journal of Animal Ecology 의 편집자가 되었다.

[7] Throughout his career, Elton wrote six books and played a major role in shaping the modern science of ecology.

그의 경력을 통틀어서 Elton은 여섯 권의 저서를 썼고, 현대 생태학을 형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1] One well-known shift took place when the accepted view — that the Earth was the center of the universe — changed to one where we understood that we are only inhabitants on one planet orbiting the Sun.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용인된 관점이 우리가 태양을 공전하는 하나의 행성에 사는 거주자일 뿐이라고 이해하는 관점으로 바뀌었을 때 잘 알려진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2] With each person who grasped the solar system view, it became easier for the next person to do so.

태양계의 관점을 이해하는 각각의 사람이 있어서, 그 다음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쉬워졌다.

[3] So it is with the notion that the world revolves around the human economy.

세계가 인간의 경제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개념도 마찬가지이다.

[4] This is slowly being replaced by the view that the economy is a part of the larger system of material flows that connect all living things.

이것은 경제가 모든 생명체를 연결하는 물질 흐름의 더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라는 관점으로 서서히 대체되고 있다.

[5] When this perspective shifts into place, it will be obvious that our economic well-being requires that we account for, and respond to, factors of ecological health.

이러한 관점이 바뀌어 자리를 잡으면, 우리의 경제적 안녕이 우리가 생태학적 건강의 요인에 책임지고, 대응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6] Unfortunately we do not have a century or two to make the change.

불행하게도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 낼 한두 세기의 시간이 없다.

[7] By clarifying the nature of the old and new perspectives, and by identifying actions on which we might cooperate to move the process along, we can help accelerate the shift.

오래된 관점과 새로운 관점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그 과정을 진전시키기 위해 협력할지도 모를 행동을 밝힘으로써 우리는 그 변화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 The first human beings probably evolved in tropical regions where survival was possible without clothing.

최초의 인간은 아마도 의복 없이 생존이 가능한 열대 지역에서 진화했다.

[2] It is likely that they had very dark skin because light skin would have given little protection against the burning rays of the sun.

밝은 피부는 강렬한 태양 광선에 대한 보호를 거의 제공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어두운 피부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3] There is a debate about whether these people spread into other parts of the world or, instead, whether people developed independently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이 사람들이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갔는지, 아니면 대신에 사람들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4] Whichever the case, it is believed that in time they became capable of spreading out from Africa, eventually to most of the world.

어느 경우이든, 언젠가 그들은 아프리카에서부터, 결국 세계 대부분의 지역으로 퍼져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믿어진다.

[5] This was probably because their physical characteristics changed.

이것은 아마도 그들의 신체적 특성이 바뀌었기 때문일 것이다.

[6] For instance, early hominids probably did not walk upright, but when they developed that ability, they could travel more efficiently.

예를 들어, 초기 인류는 아마도 직립 보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들이 그 능력을 발달시켰을 때, 그들은 더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7] More important, perhaps, was their development of tool making.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그들의 도구 제작의 발달이었다.

[8] With tools, they could hunt other animals, so they could consume more protein and fat than their low-energy vegetarian diet would have provided.

도구를 이용하여, 그들은 다른 동물을 사냥할 수 있어서, 그들의 저 에너지 채식 식단이 제공했을 것보다 더 많은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할 수 있었다.

[9] Not only their bodies but also their brains would have been changed with more energy.

그들의 신체 뿐만 아니라 뇌도 더 많은 에너지와 함께 변화되었을 것이다.

[10] The brain needs lots of energy to grow.

뇌는 성장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11] As their diet expanded, hominids could physically and intellectually expand their territory.

초기 인류의 식단이 확장되면서 그들은 신체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그들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다.

[1] When we get an unfavorable outcome, in some ways the last thing we want to hear is that the process was fair.

우리가 불리한 결과를 얻을 때,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은 그 과정이 공정했다는 말이다.

[2] As outraging as the combination of an unfavorable outcome and an unfair process is, this combination also brings with it a consolation prize: the possibility of attributing the bad outcome to something other than ourselves.

불리한 결과와 불공정한 과정의 결합이 분노를 불러일으키지만, 이 결합은 또한 위로의 상, 즉 나쁜 결과를 우리 자신 이외의 다른 무언가의 탓으로 돌릴 가능성을 더불어 가져다 준다.

[3] We may reassure ourselves by believing that our bad outcome had little to do with us and everything to do with the unfair process.

우리는 우리의 나쁜 결과가 우리와는 거의 관련이 없었고 불공정한 과정과 전적으로 관련이 있었다고 믿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안심시킬지도 모른다.

[4] If the process is fair, however, we cannot nearly as easily externalize the outcome; we got what we got "fair and square."

하지만 그 과정이 공정하다면, 우리는 결과를 거의 마찬가지로 쉽게 외부화 할 수 없으며, 우리는 우리가 얻은 것을 '정정당당하게' 얻은 것이다.

[5] When the process is fair we believe that our outcome is deserved, which is another way of saying that there must have been something about ourselves (what we did or who we are) that caused the outcome.

그 과정이 공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결과가 마땅하다고 믿게 되는데, 이는 그 결과를 초래한 우리 자신(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또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무언가 가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방식이다.

[1] The well-known American ethnologist Alfred Louis Kroeber made a rich and in-depth study of women's evening dress in the West, stretching back about three centuries and using reproductions of engravings.

미국의 잘 알려진 민속학자인 Alfred Louis Kroeber는 약 3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판화 복제품을 사용하여 서양의 여성 이브닝 드레스에 대한 풍부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했다.

[2] Having adjusted the dimensions of these plates due to their diverse origins, he was able to analyse the constant elements in fashion features and to come up with a study that was neither intuitive nor approximate, but precise,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다양한 기원 때문에 이 판들의 크기를 조정하여, 그는 패션 특징에서의 일정한 요소를 분석해서 직관적이지도 대략적이지도 않은, 정확하고 수학적이며 통계적인 연구를 구상할 수 있었다.

[3] He reduced women's clothing to a certain number of features: length and size of the skirt, size and depth of the neckline, height of the waistline.

그는 여성 의류를 스커트의 길이와 크기, 목선의 크기와 깊이, 허리선의 높이와 같은 몇 가지 특징들로 정리했다.

[4] He demonstrated unambiguously that fashion is a profoundly regular phenomenon which is not located at the level of annual variations but on the scale of history.

그는 패션이 매년 일어나는 변화의 수준이 아니라 역사의 척도에 위치하는 매우 규칙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5] For practically 300 years, women's dress was subject to a very precise periodic cycle: forms reach the furthest point in their variations every fifty years.

거의 300년 동안 여성 드레스는 매우 정확한 주기적인 순환의 영향을 받았는데, 형식은 50년마다 변화의 정점에 도달했다.

[6] If, at any one moment, skirts are at their longest, fifty years later they will be at their shortest; thus skirts become long again fifty years after being short and a hundred years after being long.

어느 한 시기에 스커트가 가장 길었다면 50년 후에 가장 짧아질 것이고, 따라서 스커트는 짧아진 데서 50년 후에 다시 길어지고, 길어진 데서 100년 후에 길어진다.

[1] Over the last few centuries, humanity's collective prosperity has skyrocketed, as technological progress has made us far wealthier than ever before.

지난 몇 세기 동안 기술 발전이 우리를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만들었기에 따라, 인류의 집합적 부가 급증했다.

[2] To share out those riches, almost all societies have settled upon the market mechanism, rewarding people in various ways for the work that they do and the things that they own.

이러한 부를 나누기 위해 거의 모든 사회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이 소유한 것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채택했다.

[3] But rising inequality, itself often driven by technology, has started to put that mechanism under strain.

그러나 증가하는 불평등은, 그 자체가 기술로 인해 자주 생기는데, 그 메커니즘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다.

[4] Today, markets already provide immense rewards to some people but leave many others with very little.

오늘날 시장은 이미 일부 사람들에게는 막대한 보상을 제공하지만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5] And now, technological unemployment threatens to become a more radical version of the same story, taking place in the particular market we rely upon the most: the labor market.

그리고 이제, 기술 혁신에 의한 실업은 우리가 가장 의존하는 특정 시장, 즉 노동시장에서 발생하여, 같은 이야기의 좀 더 급진적인 형태가 될 우려가 있다.

[6] As that market begins to break down, more and more people will be in danger of not receiving a share of society's prosperity at all.

그 시장이 무너지기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부의 몫을 전혀 받지 않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1] It's often said that those who can't do, teach.

흔히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르친다는 말이 있다.

[2] It would be more accurate to say that those who can do, can't teach the basics.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본을 가르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3] A great deal of expert knowledge is implicit, not explicit.

많은 전문지식은 명시적이지 않고 암시적이다.

[4] The further you progress toward mastery, the less conscious awareness you often have of the fundamentals.

숙달을 향해 더 나아갈수록 여러분은 흔히 기본에 대해 덜 의식적인 인식을 지닌다.

[5] Experiments show that skilled golfers and wine aficionados have a hard time describing their putting and tasting techniques – even asking them to explain their approaches is enough to interfere with their performance, so they often stay on autopilot.

실험들에 따르면 숙련된 골퍼와 와인 애호가들은 자신의 퍼팅과 시음 기술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심지어 그들의 접근 방식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들의 수행에 방해가 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주 자동 조종 상태에 있다.

[6] When I first saw an elite diver do four and a half somersaults, I asked how he managed to spin so fast.

내가 한 엘리트 다이버가 공중제비를 4회 반 도는 것을 처음 봤을 때, 나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회전할 수 있었는지 물었다.

[7] His answer: "Just go up in a ball."

그의 대답은 "그냥 공 모양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였다.

[8] Experts often have an intuitive understanding of a route, but they struggle to clearly express all the steps to take.

전문가들은 자주 방법에 대해 직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취해야 할 모든 단계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데 고전한다.

[9] Their brain dump is partially filled with garbage.

그들이 이것저것 표현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쓰레기로 차 있다.

[1] Minimal processing can be one of the best ways to keep original flavors and taste, without any need to add artificial flavoring or additives, or too much salt.

최소한의 가공은 인공 향료나 첨가물, 또는 과도한 소금을 넣을 필요 없이 본연의 풍미와 맛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

[2] This would also be the efficient way to keep most nutrients, especially the most sensitive ones such as many vitamins and anti-oxidants.

이것은 또한 대부분의 영양소, 특히 많은 비타민과 항산화물질과 같은 가장 민감한 영양소를 유지하는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

[3] Milling of cereals is one of the most harsh processes which dramatically affect nutrient content.

곡물을 제분하는 것은 영양소 함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가혹한 과정 중 하나이다.

[4] While grains are naturally very rich in micronutrients, anti-oxidants and fiber (i.e. in wholemeal flour or flakes), milling usually removes the vast majority of minerals, vitamins and fibers to raise white flour.

곡물에는 (즉 통 밀가루 또는 플레이크에는) 미량 영양소, 항산화물질, 그리고 섬유질이 자연적으로 매우 풍부하지만, 제분이 일반적으로 흰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 대부분의 미네랄, 비타민 그리고 섬유질을 제거한다.

[5] Such a spoilage of key nutrients and fiber is no longer acceptable in the context of a sustainable diet aiming at an optimal nutrient density and health protection.

(곡물 생산을 늘리려면 화학비료 사용이 최소화되어야 하고 해충에 강한 곡물 품종이 개발되어야 한다.) 주요 영양소와 섬유질의 그러한 손상은 최적의 영양소 밀도와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하는 지속 가능한 식단의 맥락에서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다.

[6] In contrast, fermentation of various foodstuffs or germination of grains are traditional, locally accessible, low-energy and highly nutritious processes of sounded interest.

대조적으로, 다양한 식품의 발효나 곡물의 발아는 알려진 관심을 받는 전통적이고, 현지에서 접근 가능하며, 에너지가 적게 들고, 매우 영양가 있는 과정이다.

[1] It would seem obvious that the more competent someone is, the more we will like that person.
누군가가 더 능력이 있을수록, 우리가 그 사람을 더 많이 좋아할 것이라는 점은 명확해 보일 것이다.

[2] By "competence," I mean a cluster of qualities: smartness, the ability to get things done, wise decisions, etc.

나는, '능력'이라는 것을, 똑똑함, 일을 수행하는 능력, 지혜로운 결정 등과 같은 총체적인 특징을 뜻하는 것으로 말한다.

[3] We stand a better chance of doing well at our life tasks if we surround ourselves with people who know what they're doing and have a lot to teach us.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우리를 가르칠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 주변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 과업에서 잘할 더 나은 가능성이 있다.

[4] But the research evidence is paradoxical:

그러나 연구 증거는 역설적이다.

[5] In problem-solving groups, the participants who are considered the most competent and have the best ideas tend not to be the ones who are best liked.

문제 해결 집단에서, 가장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고 가장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참여자들은 가장 선호되는 사람들이 아닌 경향이 있다.

[6] Why?

왜 그럴까?

[7] One possibility is that, although we like to be around competent people, those who are too competent make us uncomfortable.

하나의 가능성은, 비록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고 싶어 하지만, '너무' 능력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8] They may seem unapproachable, distant, superhuman — and make us look bad (and feel worse) by comparison.

그들은 접근할 수 없고, 멀고, 초인간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비교해 보면 우리가 형편없어 보이게(그리고 기분이 더 나쁘게) 만든다.

[9] If this were true, we might like people more if they reveal some evidence of fallibility.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어떤 증거를 드러낼 때 그들을 더 좋아할지도 모른다.

[10] For example, if your friend is a brilliant mathematician, superb athlete, and gourmet cook, you might like him or her better if, every once in a while, they screwed up.

예를 들면, 여러분의 친구가 훌륭한 수학자, 뛰어난 운동선수, 그리고 미식 요리사라면, 여러분은 가끔 그들이 일을 망친다면 그들을 더 좋아할지도 모른다.

[1] A computational algorithm that takes input data and generates some output from it doesn't really embody any notion of meaning.

입력 데이터를 받아 그것으로 부터 어떤 출력을 생성하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실제로 의미라는 그 어떤 개념도 구현하지 않는다.

[2] Certainly, such a computation does not generally have as its purpose its own survival and well-being.

분명히, 그러한 컴퓨터 계산은 일반적으로 그 자체의 생존과 안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3] It does not, in general, assign value to the inputs.

이것은 일반적으로 입력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4] Compare, for example, a computer algorithm with the waggle dance of the honeybee, by which means a foraging bee conveys to others in the hive information about the source of food (such as nectar) it has located.

예를 들어, 컴퓨터 알고리즘을, 먹이를 찾아다니는 벌이 벌집 안의 다른 벌들에게 그것이 위치를 찾아낸 (꿀과 같은) 먹이의 출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수단인 꿀벌의 8자의 춤과 비교해 보라.

[5] The "dance" — a series of stylized movements on the comb — shows the bees how far away the food is and in which direction.

그 '춤', 즉 벌집에서의 일련의 양식화 된 움직임은 벌들에게 먹이가 얼마나 멀리 있고 어느 방향으로 있는지 보여준다.

[6] But this input does not simply program other bees to go out and look for it.

그러나 이 입력은 다른 벌들이 나가서 먹이를 찾도록 단순히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아니다.

[7] Rather, they evaluate this information, comparing it with their own knowledge of the surroundings.

오히려 그것들은 이 정보를 주변 환경에 대한 그들 자신의 지식과 비교하면서 정보를 평가한다.

[8] Some bees might not bother to make the journey, considering it not worthwhile.

일부 벌들은 그 이동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굳이 그 이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9] The input, such as it is, is processed in the light of the organism's own internal states and history; there is nothing prescriptive about its effects.

그 입력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유기체 자체의 내부 상태와 역사에 비추어 처리되며, 그 결과에 대해 규정하는 것은 없다.

[1] There are deep similarities between viral contagion and behavioral contagion.

바이러스성의 전염과 행동의 전염 사이에 깊은 유사성이 있다.

[2] For example, people in close or extended proximity to others infected by a virus are themselves more likely to become infected, just as people are more likely to drink excessively when they spend more time in the company of heavy drinkers.

예를 들어, 바이러스에 감염된 다른 사람들과 아주 근접해 있거나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 사람들은 그들도 감염될 가능성이 더 높는데, 이는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낼 때 술을 과도하게 마실 가능성이 더 높은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3] But there are also import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ypes of contagion.

하지만 두 종류의 전염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들도 있다.

[4] One is that visibility promotes behavioral contagion but inhibits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한 가지는 가시성이 행동의 전염을 촉진하지만, 감염성 질병의 확산은 억제한다는 것이다.

[5] Solar panels that are visible from the street, for instance, are more likely to stimulate neighboring installations.

예를 들어, 거리에서 볼 수 있는 태양 전지판은 이웃의 설치를 복돋을 가능성이 더 높다.

[6] In contrast, we try to avoid others who are visibly ill.

대조적으로, 우리는 눈에 띄게 몸이 아픈 다른 사람들을 피하려고 노력한다.

[7] Another important difference is that whereas viral contagion is almost always a bad thing, behavioral contagion is sometimes negative — as in the case of smoking — but sometimes positive, as in the case of solar installations.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바이러스성의 전염은 거의 항상 나쁜 것인 반면, 행동의 전염은 흡연의 경우와 같이, 때로는 부정적이지만, 태양전지판 설치의 경우와 같이, 때때로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1] Sleep is clearly about more than just resting.

잠은 분명 단지 휴식하는 것 이상이다.

[2] One curious fact is that animals that are hibernating also have periods of sleep.

한 가지 호기심을 끄는 사실은 동면하고 있는 동물들 또한 잠자는 기간을 가진다는 점이다.

[3] It comes as a surprise to most of us, but hibernation and sleep are not the same thing at all, at least not from a neurological and metabolic perspective.

그것은 우리 대부분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오지만, 동면과 수면은 적어도 신경학 적이고 신진 대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혀 같은 것이 아니다.

[4] Hibernating is more like being anesthetized: the subject is unconscious but not actually asleep.

동면은 마취되는 것과 더욱 비슷한데, 그 대상은 의식이 없지만 실제로 잠들어 있지는 않다.

[5] So a hibernating animal needs to get a few hours of conventional sleep each day within the larger unconsciousness.

그래서 동면하고 있는 동물은 더 큰 무의식 속에서 매일 몇 시간의 전형적인 잠을 잘 필요가 있다.

[6] A further surprise to most of us is that bears, the most famous of wintry sleepers, don't actually hibernate.

우리 대부분에게 더욱 놀라운 점은 겨울에 잠을 자는 동물 중 가장 유명한 곰도 실제로는 동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7] Real hibernation involves profound unconsciousness and a dramatic fall in body temperature — often to around 32 degrees Fahrenheit.

실제 동면은 깊은 무의식과 체온의 급격한 하락을 포함하는데, 자주 대략 화씨 32도로 떨어진다.

[8] By this definition, bears don't hibernate, because their body temperature stays near normal and they are easily awakened.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곰의 체온은 정상 근처를 유지하고 쉽게 잠에서 깨어나기 때문에 그것들은 동면하지 않는다.

[9] Their winter sleeps are more accurately called a state of torpor.

그것들의 겨울잠은 더 정확하게는 휴면 상태라고 불린다.

[1] The concern about how we appear to others can be seen in children, though work by the psychologist Ervin Staub suggests that the effect may vary with age.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데 대한 걱정은 아이들에게서 보일 수 있지만, 심리학자 Ervin Staub의 연구는 그 영향이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시사한다.

[2] In a study where children heard another child in distress, young children (kindergarten through second grade) were more likely to help the child in distress when with another child than when alone.

아이들이 곤경에 처한 다른 아이의 소리를 들었던 한 연구에서, 어린 아이들(유치원에서 2학년까지)은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아이와 함께 있을 때 곤경에 처한 아이를 도울 가능성이 더 높았다.

[3] But for older children — in fourth and sixth grade — the effect reversed: they were less likely to help a child in distress when they were with a peer than when they were alone.

하지만 4학년과 6학년과 같이 나이가 더 많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결과가 뒤바뀌었 는데, 그들은 혼자 있을 때보다 또래와 함께 있을 때 곤경에 처한 아이를 도울 가능성이 더 낮았다.

[4] Staub suggested that younger children might feel more comfortable acting when they have the company of a peer, whereas older children might feel more concern about being judged by their peers and fear feeling embarrassed by overreacting.

Staub은 더 어린 아이들은 또래와 함께 있을 때 행동하는 데 더 편안함을 느낄지도 모르는 데 반해, 나이가 더 많은 아이들은 자기 또래들에게 판단 받는 것을 더욱 걱정하며 과잉 반응에 의해 창피함을 느끼는 것을 두려워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5] Staub noted that "older children seemed to discuss the distress sounds less and to react to them less openly than younger children."

Staub은 '나이가 더 많은 아이들은 더 어린 아이들에 비해 곤경(에 처한 아이들)의 소리에 대해 덜 이야기하고, 덜 공공연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였다.' 라고 언급했다.

[6] In other words, the older children were deliberately putting on a poker face in front of their peers. 다시 말해서, 더 나이가 많은 아이들은 의도적으로 자기 또래들 앞에서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7] The study suggests that, contrary to younger children, older children are less likely to help those in distress in the presence of others because they care more about how they are evaluated.

연구는 더 어린 아이들과는 반대로, 나이가 더 많은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곤경에 처한 아이들을 도울 가능성이 더 낮으며, 그 이유는 그들은 자신이 어떻게 평가받는지에 대해 더 많이 신경 쓰기 때문이라고 시사한다.

41-42

[1] What makes questioning authority so hard?

무엇이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그토록 어렵게 만들까?

[2] The difficulties start in childhood, when parents – the first and most powerful authority figures – show children "the way things are."

그 어려움은 유년 시절에 시작 하는데, 이는 최초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권위자인 부모가 아이들에게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 을 제시하는 때이다.

[3] This is a necessary element of learning language and socialization, and certainly most things learned in early childhood are noncontroversial: the English alphabet starts with A and ends with Z, the numbers 1 through 10 come before the numbers 11 through 20, and so on.

이것은 언어 학습과 사회화의 필수적인 요소이고, 확실히 초기 유년기에 학습되는 것 대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데, 영어 알파벳은 A에서 시작해서 Z로 끝난다는 것, 숫자 1부터 10은 숫자 11부터 20보다 이전에 나온다는 것 등등처럼 말이다.

[4] Children, however, will spontaneously question things that are quite obvious to adults and even to older kids.

하지만 아이들은 어른들과 심지어 더 나이 많은 아이들에게도 꽤 명백한 것들에 즉흥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5] The word "why?" becomes a challenge, as in, "Why is the sky blue?"

"왜요?" 라는 말은 "왜 하늘은 파랗까요?" 에서처럼 도전이 된다.

[6] Answers such as "because it just is" or "because I say so" tell children that they must unquestioningly accept what authorities say "just because," and children who persist in their questioning are likely to find themselves dismissed or yelled at for "bothering" adults with "meaningless" or "unimportant" questions.

"그냥 그러니까" 혹은 "내가 그렇다고 하니까" 와 같은 대답들은 권위자들이 "단지 그러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아이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말해주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지속하는 아이들은 '무의미한' 혹은 '중요하지 않은' 질문으로 어른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 때문에 그들 자신이 쫓겨나거나 고함을 듣는다는 것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다.

[7] But these questions are in fact perfectly reasonable.

하지만 이러한 질문들은 실제로 완벽하게 합리적이다.

[8] Why is the sky blue?

왜 하늘은 파랗까?

[9] Many adults do not themselves know the answer.

많은 어른들은 자신도 그 대답을 알지 못한다.

[10] And who says the sky's color needs to be called "blue," anyway?

그리고 어쨌든 누가 하늘의 색깔이 '파란색' 으로 불려야 한다고 말하는가?

[11] How do we know that what one person calls "blue" is the same color that another calls "blue"?

한 사람이 '파란색' 이라고 부르는 것이 또 다른 사람이 '파란색' 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색깔인지 어떻게 우리가 아는가?

[12] The scientific answers come from physics, but those are not the answers that children are seeking.

과학적인 답은 물리학에서 나오지만, 그것들은 아이들이 찾고 있는 답은 아니다.

[13] They are trying to understand the world, and no matter how irritating the repeated questions may become to stressed and time-pressed parents, it is important to take them seriously to encourage kids to question authority to think for themselves.

그들은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반복되는 질문들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시간에 쫓기는 부모들에게 아무리 짜증스러울지라도, 아이들이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독려하여 스스로 생각하도록 그것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